

광산구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 속도

공약실천조례 기반 체계적 관리 추진율 50.8%...우수 사례 선정도

광주 광산구가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수립한 '공약실천조례'를 기반으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제정된 공약실천조례에 따라 민선 8기 구정장의 공약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의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공약이행평가단(19명)'을 구성하고 '시민배심원단(35명)'을 선정해 세 차례에 걸쳐 실행계획서를 점검받는 등 수립과정부터 시민 참여와 속의 과정을 거쳐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다.

또 해당 공약 실행계획은 광산구 누리집 매니페스토 코너를 통해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접근성 개선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선 8기 공약이행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민선 8기 공약 추진율이 50.8%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광산구는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등 4대 분야 40개의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3개 공약을 완료하고 37개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운영'으로 주민과 97차례 만나 1074건의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구청장 직속 정책기획단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정책기획단은 그동안 매일 원탁회의를 거



광산구 직원들이 최근 열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쳐 22건의 정책자문 등의 관련 토론회를 추진했다.

이는 주민 소통을 기반으로 전문가와 함께 혁신정책을 이끌고자 추진한 공약사업으로, 민선 8기 1년을 지나면서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이다.

또 광산고(가칭) 신설, 광주 최초 미래교육지구 사업 선정,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등은 민선 8기 공약의 성과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난 4월

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고(SA)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뤄졌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새로운 광산의 미래 비전인 민선 8기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생과 혁신의 광산을 만드는 길에 많은 시민이 동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폭염 속 시민 안전 지킨다

광산구 긴급상황점검회의...TF 상시 가동, 취약시설·계층 정비

광주 광산구가 시민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 여름 시즌이 돌입함에 따라 수시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갖고 폭염 피해 대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운영질한 감시 체계 운영 및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광산구는 특히 지난 5월부터 폭염대응 TF를 상시 가동하고 ▲폭염 대응 상황반 운영 ▲폭염저감 시설 설치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 등 3개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그늘막 158개소, 쿨루프 23개소, 무더위쉼터 442개소 등 도심 곳곳에 폭염 대비 시설을 확

충하고 있으며,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도 정기 운영 중이다.

광산구는 또 최근 전국 곳곳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방문건강관리사가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살피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재난문자, 전광판,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알리는 한편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공항역~극락교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한다

보행로 분리 1.55km 조성 '자전거 이용 핵심 통로' 개선

광주 광산구는 "광주지하철 공항역~극락교 구간에 보행로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구간은 광주송정역 일대 도심과 영산강변 자전거길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광주의 자전거 핵심 통로로 꼽힌다.

하지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형태로 비좁고, 길도 울퉁불퉁해 이용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상무대로 경관개선사업'으로 광주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 1.55km를 조성하

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극락교부터 공항역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과 함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공항에서 공항역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조성·정비할 계획이다.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 밖에도 덕흥대교부터 풍영정전 합류부까지 영산강 우안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정비공사 등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93개 노선 235km로 광주 전체 자전거도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추진 일자리, 전주·충북 등 벤치마킹

경제·노동 정책 관심...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등 정책 공유

광주 광산구가 추진중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일하기 좋은 도시 등 일자리, 경제, 노동 정책이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 노동지원팁 신설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산구를 방문했다.

전주시는 일자리 혁신의 시발점이 된 광주형 일자리의 뒤를 잇고 있는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추진 상황 등을 '전주형 일자리 사업'에 주목하고 성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광산구는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사회의 복합적 위기와 위협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해법이 일자리에 있다고 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련한 모델을 하나의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었다면,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는 광산구리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혁신 실험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전담 부서(지속성장일자리과)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 중이다.

광산구를 방문한 전주시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은 "기초지자체 차원의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구적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기본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등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충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 정책 선진사례'로 광산구를 방문해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일자리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복잡·다양한 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광산구 일자리 혁신 모델의 성공과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전국 지자체와의 소통하고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8일까지 여름 방학학교 장애인생활체육 운영

광주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여름 방학을 맞아 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하는 '2023년 광산구 장애 청소년 여름 방학학교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여름 방학학교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은 광산구 소재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주 5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광산구 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프

로그램 참여자는 총 65명으로 생활체육, 배드민턴, 태권도, 뉴스포츠, 성장클리닉 등이다.

양오열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청소년들의 방학 중 돌봄 공백 등이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걱정인 것은 감안해 방학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